‘저출생 극복’ 여수시, 생애주기별 지원 혜택 “한 눈에”

청년기·임신출산·노년기 등 지원 정책

부시장 단장 ‘인구감소 대응 TF’ 운영 등

여수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혜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발표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청년기와 임산·출산시, 육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미처 알지 못해 신청 적기를 놓치는 대상자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청년기에는 ▲문화복지카드 25만원 ▲도서구입비 10만원 ▲문화예술패스 15만원 ▲정신건강 치료비 40만원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등 30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출산 시에는 ▲출산지원금 5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난자 냉동 시술비지원 100만원 ▲임신축하금 5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48만원 등 4천28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천5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20만원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등 특별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아이를 키우는 육아기에는 ▲출생기본수당(1-18세) 4천320만원 ▲아동수당(1-7세) 840만원 ▲영유아 보육료(0-2세) 1천690만원 등 7천413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아이가 성장해 아동·청소년기가 되면 461만원(치과주치의(8-13세) 24만원,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10만원,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장려금 300만원 등), 중장기 노년시기에는 188만원(치매 무료검진 및 감별검사비 지원 8만원, 신중년 잡매칭 취업장려금 18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앞서 소개한 모든 생애주기별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1억3천여만원(1억2천642만원)이 된다.

여기에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받는 비현금성 지원도 있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여수산단 등 대기업 취업을 돕는 테크니션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지원센터에서는 면접 정장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청년 전입 1인 가구에 5만원 상당의 식기세트도 지원한다.

임신·출산기에는 신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모성검사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4-5만원 상당의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한다. 태교공예, 임부요가, 신생아케어교실 등 임산부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모유착유기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여수시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시 지원 혜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대상자 누락을 최대한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특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봐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인구감소 대응 TF를 운영,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와 청년주거 안정화, 생활 체감형 정책 발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쏠리스장흥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400㎿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대덕읍 가학리·회진면 진목리 일원

햇빛연금 구조 스마트팜 단지 추진

장흥군이 국내 최대 규모 400㎿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쏠리스장흥과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해 주식회사 쏠리스장흥, 한국수력원자력, LS일렉트릭, 한화솔루션, 다스코, BS한양 등 주요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덕읍 가학리, 회진면 진목리 일원 약 90만평(297만5천206㎡) 규모 염해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0㎿급 태양광 발전설비와 6만평(19만8천347㎡)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7천6억원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며,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구조가 포함됐다.

지역 주민들은 수익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도와 지역 수용성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집적화단지 조성 신청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쏠리스장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병훈 ㈜쏠리스장흥 대표는 “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성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집적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풍력, 태양광,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 운영하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에너지 타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곡성군,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 지원…고위험군 선정

곡성군은 17일 “오는 8월까지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이상 등록 가구이나 실제 혼자 거주하는 가구, 주소는 없지만 곡성군에 거주하는 실질적 1인 가구까지 포함된다.

조사는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통합사례관리사 등 41명이 참여하며, 마을 이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과 협력해 현장 위주의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차 조사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경제활동 여부, 사회활동 참여도, 돌봄 서비스 이용 등을 조사해 고위험군을 선별하며, 현재 1차 조사는 약 70%가 완료된 상태다.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도와 우울 상태를 평가해 최종 고위험군을 선정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구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민간자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연중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광양형 청년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착수

일상 밀착형 정책 발굴

광양시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광양형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김기홍 부시장 주재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보고회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청년정책 5대 분야 50개 사업 담당 부서장이 참석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5개년 계획인 제2차 광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광양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1차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을 진단한 후 청년 체감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광양형 청년정책’을 새롭게 발굴·수립할 계획이며,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장현필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청년정책은 지나치게 산업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상에 밀접한 소소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도립미술관과 미디어아트 등 광양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접점으로 삼아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부시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광양시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심층적인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성군, 내달부터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이용료 1천원·月 최대 60시간

장성군은 “최근 공립사임당예랑어린이집(장성읍 문화로 21-34, 061-395-0420·사진)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 공립어린이집 부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은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당 1천원을 내고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집에서 돌보는 아이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야간 모두 이용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11월 온 가족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가족행복센터(장성읍 역전로 199-10)’를 개관했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수의 복지기관이 들어서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 선정이 보육 공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 가축시장 현장 방문

한우 가격 동향·경매 진행상황 점검

담양군은 “최근 정철원 담양군수가 담양읍 만성리에 자리한 가축시장을 찾아 한우 가격 동향과 경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가축시장에는 정 군수를 비롯해 강종문 담양축협조합장, 김남송 축산원예과장 등이 함께했으며, 264마리의 한우가 경매에 부쳐졌다.

정철원 군수는 현장 간담회에서 “사료값 상승과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차액 지원과 소규모 한우 농가 사료 인상 차액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가축시장 주변 아스콘 포장을 통해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축시장 운영을 통해 가축 질병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양군 가축시장은 1994년 10월 첫 경매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정기 운영되고 있으며, 회당 평균 300두의 한우가 거래되고 있다.

전자 경매시스템을 갖춘 이곳은 연간 약 1만6천 마리의 거래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총 700여명…만 18세 이상 누구나

구례군은 17일 “오는 8월29일까지 ‘2025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7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철인3종경기 대회는 9월26일부터 29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원봉사자는 선수 현장등록 지원, 안내소 운영 지원, 읍면 거점 보급소 운영 지원, 통역 지원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본 교육과 봉사시간 인정, 단체보험 적용, 유니폼 제공, 식사 및 간식 등이 제공된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 온라인 및 구례군 스포츠산업과 방문, 우편, 팩스(061-780-2199)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국제철인3종경기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소중한 축제의 장”이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스포츠산업과(061-780-2748)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임종길 기자